

SAMSUNG

삼성전자

##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안전으로 글로벌 일류기업 구현

삼성전자는 생명외경사상을 바탕으로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는 기업활동을 통하여 인류의 풍요로운 삶과 지구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녹색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환경안전 경영체제 운영, 지속적 환경안전개선, 오염물질 배출 및 환경안전사고 최소화, 법규준수, 제품으로 인한 환경안전영향 개선, 공개적 환경안전 경영 등 환경안전 방침을 수립하고, 실천을 위해 전사 차원의 「환경안전 사무국(사무국장 성규식 상무)」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사무국에서는 사업장 환경안전 부서장과 관련 임원이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여 추진전략 수립 및 상호 정보공유를 통해 글로벌 일류 기업 구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4년에는 전 사업장의 무사고 달성 및 해외 법인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지원체제 구축, 친환경제품 개발 및 협력회사 지원을 통한 상생경영 기반 구축 등의 활동을 추진했다.

2005년 삼성전자의 주요추진 계획으로는

- ▲ 국내외 사업장의 적극적 환경안전관리를 통한 무사고 실현
- ▲ 해외법인의 본사관리 수준달성(전문인력 육성 및 개선활동 추진)
- ▲ 협력회사와의 상생경영을 위한 지원활동(국제규격 취득지원, 환경안전 기술지원)

▲ 인간공학 적용, 실내공기질 개선 등을 통한 임직원의 삶의 질 향상을 추진하여

전 사업장이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 구현으로 글로벌 일류 기업을 달성하고, 이러한 환경안전 성과

를 수록한 '녹색경영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환경안전팀장 성규식 상무



## 서로의 안전은 지켜주며, 「사람」에 기초한 안전 실현

어느덧 갑신년(甲申年)이 저물고 을유년(乙酉年)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붉게 솟아오르는 해를 보며 가족의 건강, 합격, 무재해 등 신년 소망을 되새깁니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갑신년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던 해였습니다. 유가상승, 경기하락, 실업률 증가 등의 어려움 속에 산업 각 분야의 기업들은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이렇듯 기업 생존을 위해 조직의 역량을 기업 성과에만 쏟아 붓는다면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과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며, 이는 각종 사고와 기업의 경제적 손실로, 그리고 기업의 존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안전인들은 현장 곳곳에 잠재된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각종 사고와 인적 재해라는 복병을 뿌리 뽑는데 열과 성의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팀은 올해에도 안전의 기본 3요소인 교육, 기술, 관리적 측면을 바탕으로 안전의 궁극적인

목표인 인도주의 실현과 경영과 안전이 하나되어 생산을 둘러싼 Risk를 제거하고, 기업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안전관리 활동 및 기술을 축적해 나갈 것입니다. 보건적인 측면 또한 근로자 신체에 국한하지 않고 정신운동, 직장에서의 적극적인 태도, 창조적인 업무자세, 마음의 여유 등 직장 내에서의 건강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선진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전 직원의 가슴속에 모든 사고는 예방 가능하며, 서로가 서로의 안전을 지켜주는 이러한 노력이 얼마나 가치 있고 숭고한 것인지, 얼마나 중요



한 것인지 스스로 깨닫게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안전·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의 전도사입니다. 이에 우리 모두는 자긍심을 가지고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여 올해에는 단 한건의 경미한 사고도 발생되지 않기를 염원해 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복과 희망찬 일터를 위해서 을유년 새해를 힘차게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 「사건예방 내가한다」 근로자 스스로 행동하는 안전 위해 노력할 터

2004년의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어느덧 을유년 2005년이 밝았습니다. 매년 보내는 지난해이고, 매년 맞이하는 새해이지만, 이번 2005년은 더욱 큰 설렘으로 다가옵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기반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대림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함입니다.

「재해예방! 기본 준수로부터」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종횡무진한 2004년도는 철저한 기본 준수로 현장의 작업환경이나 근로자 의식 등을 향상시켰고, 그 바탕을 이어받아 2005년도에는 「사건예방 내가한다」라는 슬로건으로 과거 다져진 기반 위에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실효성 있는 안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과거의 안전이 점검과 진단, 근로자의 안전의식 향상에 초점을 맞춘 양적 성장을 위한 안전이었다면, 올해는 그와 더불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질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안전으로 거듭나기 위해 나아갈 것입니다.

건설현장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추락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그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공동협업체와 자율적인 안전활동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목표재해율 0.20% 달성을 위해 저희 안전환경팀이 주축이 되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안전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 스스로 자신을 사랑하고, 주위의 내 동료를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만 있다면 안전이라는 천사는 항상 우리 곁에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저희 안전환경팀은 나 자신

을, 내 동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2005년을 맞이할 것이며, 힘찬 2005년, 사랑 넘치는 2005년을 만들어 나갈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오늘도 현장에서 땀흘리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2005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안전환경팀장 -



## 모두가 함께하는 실천하는 안전으로 무재해 현장 일구자

안전은 백 마디의 말보다 한번의 실천이 중요합니다. 그 동안 안전과 관련하여 많은 지도와 예방을 위하여 힘써주신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산업안전공단, 노동부 산업안전과 등 여러 기관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는 저 뿐만 아니라 통일중공업(주)에 있어서 다사다난 했던 한 해였습니다. 저희 회사가 법정관리와 M&A를 거쳐 도약하는 기로에서 안전에 대한 소홀로 어려움도 있었으나, 이를 즉시 개선하는 슬기로운 대처로 지금은 노·사가 하나 되어 흑자경영에 총매진한 해였습니다.

특히, 우리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가 한 건도 발생되지 않았고, 산재발생도 전년도 대비 50%가 감소하는 등 기록적인 면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남긴 해였습니다.

노·사가 함께 자율적으로 근골격계 유해요인을 관리·개선한 것은 산업사회에서 노·사가 함께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좋은 본보기로 남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최고경영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강력하게 추진되었습니다. 이는 2005년도에도 지속적이고 의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해는 무재해 목표 300만시간 달성과 근골격계 부담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여 안락하고 쾌적한 직장분위기 조성

과 전 사원들에게 경 안전 모를 착용시켜 낙하물에 대한 중대 재해를 예방하는데 역점을 두고 재해없는 사업장을 만들도록 실천하고 노력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전 환경팀원들은 항상 현장과 함께



하면서 직접 발로 뛰는, 현장과 직결되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정착시켜 전 사원이 안전 예방활동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담띠해인 올해 모든 안전인들이 상호 정보교류가 더욱더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음지에서 고생하지만 항상 자부심을 갖고, 꿈과 희망이 충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